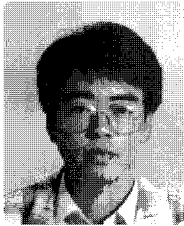


# 바이러스성 자돈 설사병 발생시 대처방법



이 재 춘 원장  
인별 피그 클리닉

로 인해 밀렸던 모돈들이 교배가 집중된 시기에 수태되었던 자돈인 만큼 그 피해 숫자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장에서 발생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결정된 분만예정복수에서 확보된 자돈을 최대한 피해 없이 관리하는 것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 1. 설사병 발병시 컨트롤 원리

설사병 발병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사항은 정확한 진단이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 컨트롤의 방법을 결정한다. 발생시 처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최초발생 후 돈군의 면역도를 신속히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소독과 전파 차단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이에선 다음의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최** 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자돈 설사병의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양돈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1~3월 분만 자돈의 경우 지난 여름철 번식성적 저하

• 빠른 전파 →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방법

• 최대한 억제 → 성공시는 이득이나 자칫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농장의 시설, 관리 능력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는 발생시 2주 이후 분만복들에는 신속하고 강하게 전파시키고, 2주 이내 복은 가급적 분만후 3주까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질병 전파를 완만히 해서 돈군의 면역도가 신속히 높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근절에 역행할 수도 있다.

## 2.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는 컨트롤 방법

질병 발생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게 진행되고 전파 속도 또한 느린 경우 최대한 전파를 억제하는 쪽으로 처치 방향을 잡는다. 이를 사양가들이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발생양상에 따른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 사양관리와 환경관리 측면

- 돈사 내 · 외부 소독 횟수 증가 (1일 1회)
- 각 돈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및

## 기구의 돈사간 이동 제한

- 분만사 입식 모돈의 돈체 소독 철저
- 분만사 실내 온도는 25도, 가급적 과습을 방지하고 청결하게 유지
- 음수소독 및 분만사 시설물에 대해 화염 소독 실시
- 분만 처치후 바로 초유를 먹임(초유섭취 전 유방 소독 실시)
- 감염 사이클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시 분만틀로 활용할 수 있다. (자돈사에 분만틀 임시 설치)
-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자돈은 조기에 도태시키고 모돈도 이유시켜 분만사내 사육두수를 일시적으로 줄임.(모돈의 번식력 저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 나. 모돈에 대한 처치

-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 도태 자돈의 장을 분만예정 기준 1주 이상 되는 모돈에 먹임. (3일후 1회~2회 더 먹임)
- 분만사 실내 온도 상승에 따른 모돈의 식욕부진 및 저유증 예방을 위한 강제급수 시도와 예방적 약제의 주사.
- 분만 2주전 모돈에 철분 5ml 주사 및 구충 실시

## 다. 자돈에 대한 처치

- 경구감염 경로를 가능하면 차단
- 탈수 예방을 위해 1일 2회 전해질 복강 주사 및 3일령 자돈에 철분주사 실시
- 분만전 모돈의 배분자리 및 항문주위 청소 및 소독
- 분만후 초유를 충분히 먹임

- 생후 6~7일 이후에 설사를 시작하는 자돈의 모돈은 면역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시를 해 두었다가 다른 자돈을 양자 포유시키는데 활용

- 전해질 제제를 별도의 물통에 공급하여 자돈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줌.

- 복강주사는 생후 6~7일 경부터 설사를 시작하는 복의 자돈에 실시한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후 3일 이내에 설사를 시작한 경우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 분변 상태가 바뀌어지는 회복 자돈에 항생제, 수액 및 지사제 투여시 효과가 좋다.

## 3.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통한 컨트롤 방법

질병 발생 초기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농장의 경우 이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최대한 빨리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신속하고 고도 높은 수준의 돈군 면역도를 획득시키는 쪽으로 처치방향을 잡는다.

## 가. 인공감염

- 생후 2일째 설사 시작하는 자돈의 소장을 12시간후 취하여 익일 오전 중으로 1차 인공감염을 실시하고 그 후 3일 간격으로 2, 3차 인공감염 실시.

- 분만예정 1주 이상 남은 전체 모돈군에 인공감염 실시

- 1차 인공감염을 실시한지 6일후 분만 복부터 설사증상 완화 및 생후 설사 시작시기의 지연을 기대. 늦어도 발생 14일후 분만 복부터는 종결을 목표로 함.

## 〈인공감염 재료 준비법〉

- 찬 우유 1000ml
- 설사한지 12~24시간 이내 자돈의 신선한 소장 2~3두 분량
- 항생제와 혼합(SM 1g+페니실린 100만 단위)
- 냉동실에서 얼린 장과 우유, 그리고 항생제를 믹서기로 간다.
- 분만예정 1주일 이상 남은 모돈에 두당 30ml 정도 급여(3회 이상 실시)
- 인공감염시 주의점 : 모돈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므로 사료 급여량을 조절할 것.
- 인공감염 실패 요인
- 24시간 이상 경과된 자돈의 장을 사용시 효과 줄어들.
- 재료보관을 차게 하지 않을 때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짧아짐.

- 치료의 기준 : 발생 최초 1주일까지는 생후 48시간 이내의 설사 발생복은 치료를 포기함. 그러나 생후 48시간 이후에 설사 발생시는 전해질 보강 치료 실시.(복강주사는 중탕에 약 40도 정도로 데워서 이용)

- 최초 발생 후 1주간은 전 돈군에 바이러스를 신속히 전파하고 1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높인다.

- 최초 발생후 초기 1주간은 자돈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포유를 지속시킨다. → 신속한 전파와 모돈의 자궁 회복을 돕기 위해.

- 상황이 종결되기 전까지 유도분만은 실시하지 않음.

### 나. 모돈관리 사항

- 영양제 첨가, 지속성 페니실린 제제 주사(분만시), 비칸톨 주사.

- 최초 발생 후 7일 이후의 예정돈은 분만 1주전에 철분 주사실시(모돈, 자돈의 면역증강 위해)

- 모돈 조기이유시 지속성 항생제(PPS,

TM/LA) + 소염제 주사

- 조기이유 모돈은 초기 1주간 1일 1kg 사료 급여, 다음 1주간은 2kg으로 증량 이후 1주간 3kg 정도로 강정 급여 및 응돈 접촉.(이때 교배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실시)

### 4. 바이러스성 설사의 컨트롤 실패 경우 (근절이 안되는 경우)

- 바이러스성 설사의 발생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발생 초기부터 증상이 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상이 진행되고 전파 속도도 느린 경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대처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실제 대부분 농장에서 자가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1차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 인공감염 실시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즉 인공감염 재료의 선택 및 제조, 취급과정과 인공감염 대상돈 범위 결정 등의 일련의 진행과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 일단 발병한 후 증세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백신으로 컨트롤 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단지 질병 발생전에 지속적으로 접종을 했을 경우 발병율을 낮출 수 있으며 발병을 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양돈**